



임실군이 지난 13일 초여름 저녁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2019 길거리 음악회'를 열어, 지역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임실시장,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
길거리 음악회 열어 특별한 추억과 감동 선사

임실시장이 전통시장의 기능을 뛰어넘어 주민과 시장상인들이 함께하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임실군은 지난 13일 초여름 저녁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2019 길거리 음악회'를 열어, 지역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음악회는 임실군이 후원하고, 한국음악협회 임실지부(지부장 이동성)가 주최한 가운데 열렸다.

임실시장 야외특설무대에서 열린 이번 음악회

에 심 민 군수와 신대용 군의회의장을 비롯하여 주민과 상인들이 함께 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한 이번 음악회는 임실지부 소속의 팜페라 그룹 사파나무밴드와 전문 음악인으로 구성된 전라북도음악협회 팜스오케스트라 빅밴드의 공연배틀을 주제로 진행됐다.

음악회는 품격있고 흥겨운 무대를 펼쳐, 때이른 무더위와 비번 일상 속에 지친 관람객들의 심신을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음악회를 통해 임실시장은 단순한 전통

시장이 아닌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음악협회 임실지부 이동성 지부장은 "저녁 달빛을 조명삼아 야외에서 펼쳐진 이번 음악회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자그마한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군민들과 음악을 나누고 행복을 연주하는 임실 음악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 "단순한 시장의 기능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편안하게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야외 공연을 많이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방방곡곡 문화공감 작품 '여보 나도 할 말 있어' 부안 상륙

부안군에서 2019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침찬 기획공연 연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가 7월 5일 오후 7시30분 부안예술회관 2층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연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는 동계 짬뽕방에 모인 중년분들의 인생이야기로 개그맨이자 MC 이흥렬을 필두로 김태향, 이상민, 김정하, 허인영, 장혜리가 출연해 다양한 연기와 재미로 볼거리를 더하고 우리의 일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공감할 수 있는 웃음이 넘치는 연극이다.

중장년층이 공감하는 부모님들의 삶을 깊이 있게 담아낸 작품으로 다양한 남녀이야기를 통해 삶이 버거운 중장년층에게 뜨거운 힐링을 드릴 대한민국 중년이면 누구나 100% 공감하는 통쾌한 연극이 될 것이다.

작가 겸 연출 김영순은 "젊은 날이 당신과 나를 지나가 버렸어도 중년의 당신과 내 모습 그대로 우리 다시 사랑하며 살자. 힘겨운 세월 잘 견디느라 중년이 된 당신과 나에게 격려와 위로를 보낸다. 또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 중년의 아름다움으로 서 있는 당신과 나를 위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자"고 전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2013년 5월 초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품격 있는 연극작품을 통해 유쾌하고 뜻 깊은 시간 가지시길 바라며 보시는 내내 깊은 울림으로 다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관람료는 전석 5000원으로 15세 이상 입장가능하며 티켓은 티켓링크에서 6월 17일부터 예매가 가능하다.(부안예술회관 사무실에서도 관람권 구매 가능)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교육문화회관, '책방 속 마법 우체국' 공연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는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자녀가족을 대상으로 한 문화공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22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교육문화회관 2층 제2전시실에서 진행된다. 공연의 주제는 '2019년 가족 북클럽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책방 속 마법 우체국'이다.

이번 공연은 동화책과 연계한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아이들에게 독서에 대한 동기를 부

여하고 가족 간 소통 및 독서문화를 증진하고자 마련했다. 공연은 동화 속 주인공들이 우체부 모모에게 편지를 보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며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교훈을 전달하는 내용이다.

관람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9일까지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누리집(<https://lib.jbc.go.kr/jc>)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 작은 음악회'에서 원광대학교 음악과 학생들이 공연을 하고 있다.

눈높이 맞춤 공연으로 풍성한 문화 향유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 음악회' 큰 호응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익산시 직영)가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 작은 음악회'가 호응을 얻고 있다.

'어린이 작은 음악회'는 아이들이 함께 웃고 즐기며 감상할 수 있는 참여형 음악회로 원광대학교 음악과 학생들이 공연을 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14일 현악 4중주(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가 지역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작은 음악회를 진행했으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와 겨울왕국, 이웃집 토토로 등 영화음악을 실제 악기를 통해 들을 수 기회를 제공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현악기와 관악기를 활용한 관악 4중주(트럼펫, 트럼본, 튜바 등)가 영유아 맞춤형 공연으로 기획됐다. 특히 이번 음악회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악기 소리를 들어보고 음악에 맞춰 노래와 율동을 따라하며 함께 즐길 수 있는 맞춤형 공연으로 진행돼 관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생에게 지역애착

심을 심어주기 위해 추진된 지역대학 시정 참여 프로그램으로 대학생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진행한 사업이어서 그 의미가 깊다. 음악회에 참여한 어린이집 교직원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풍성한 문화 공연의 기회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이 진행돼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공연에 참여한 원광대학교 학생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았다"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공연과는 많이 달랐지만 더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대학 시정참여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 대학생에게는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영유아에게는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익산=장영민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